

유통업계, 파리올림픽 앞두고 ‘스포츠 스타’로 팬덤 정조준

파워에이드, 펜싱 오상욱 등 발탁 유한양행, 높이뛰기 이상혁 선정 도미노피자, 월드컵 손흥민 모델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이 한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유통 기업들이 스포츠 팬심을 잡기 위해 선수들을 모델로 기용해 눈길을 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2020년 국내 10대 트렌드 중 하나로 ‘팬덤 경제의 부상’을 발표했다. 그로부터 약 4년이 지난 지금 팬덤의 구매력은 아이돌그룹 차원에서 벗어나 기업의 앞날마저 흔들 수 있는 힘으로 여겨지며 물밑에서는 ‘팬심비’를 잡기 위한 브랜드들의 치열한 경쟁이 진행 중이다.

‘팬심비’는 ‘팬심’에 ‘가심비(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도)’가 더해진 용어로 팬심 대비 심리적 만족을 뜻한다. 유통 브랜드들은 어느 때보다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은 현 시기에 스포츠스타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2024파리올림픽 공식 스포츠음료인 코카-콜라사 파워에이드는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펜싱 국가대표 오상욱, 수영 국가대표 황선우,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 등 3명의 국가대표 선수를 모델로 발탁하고 이들의 폭발적인 파워와 파워에이드가 어우러진 새로운 캠페인 ‘나만의 순간 멈추지 않는 파워’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세 선수 모두 여러 번의 국제대회를 통해 스타성과 함께 메달 가능성을 보여준 각 분야의 대표 선수다.

‘도쿄올림픽 어벤져스’의 막내였던



파워에이드 모델 오상욱(왼쪽), 황선우(가운데), 신유빈 선수.

/한국 코카-콜라

오상욱 선수는 이번 시즌 ‘뉴 어벤져스’를 구성하고 펜싱부문 파리올림픽 개인전 및 단체전을 노리고 있다. 황선우 선수는 자유형 100m, 200m, 개인혼영 200m, 혼계영 400m, 계영 400m에서 한국 신기록을, 계영 800m에서는 아시아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수영의 ‘간판스타’다.

‘국민 빼악이’로 유명한 신유빈 선수는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여자 복식 금메달을 포함해 메달 4개를 획득했던 한국 여자 탁구의 간판선수다. 파워에이드는 세 선수와 함께 촬영한 포스터 및 사진을 비롯해 세 선수가 출연하는 광고 영상 3편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유한양행은 현대인의 영양 요구를 고려해 설계한 프리미엄 복합 건강기능식품 ‘유한포텐업’을 출시하며 높이뛰기 국가대표 이상혁 선수를 모델로 선정했다. 2020 도쿄올림픽에서 ‘스마

일 점퍼’라는 별명을 얻은 그는 올림픽 이후로도 각종 국제 대회에서 상위권 성적을 올리고 있어 이번 올림픽에서도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

한국인이 즐기는 스포츠는 다양하지만 팬덤의 강력함은 구기 종목에 따라 올 수 없고, 그중에서도 최고봉은 해외 진출 선수가 많은 ‘축구’다. 특히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 중 해외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은 남녀노소에게 사랑받고 있다.

도미노피자는 세계적인 축구선수인 손흥민 선수를 모델로 선정했다. 도미노피자는 “손흥민 선수처럼 건강하고 즐거운, 모든 세대가 사랑하는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모델로 선정했다”고 선정 배경을 소개했다.

손흥민 선수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이자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 홋스퍼 FC의 주장이며, 공격수로

활약하고 있다. 2021-22시즌에서 아시아 선수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골든부츠(득점왕)를 수상하는 등 다수의 전설적인 기록을 만들어내고 있다.

KGC인삼공사는 정관장 스테디셀러 브랜드 ‘홍삼톤’의 엠버서더로 월드 클래스 수준의 황희찬 선수를 발탁했다. 정관장은 한국 축구 국가대표이자 울버햄튼 소속인 황희찬의 강렬한 ‘황소의 힘’과 정관장 홍삼의 ‘건강’ 이미지가 맞아떨어져 황희찬 선수에게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냈다고 밝혔다.

황희찬은 축구 국가대표 선수이자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울버햄튼 원더러스 FC에서 공격수로 활약하고 있다. 2010년에 U-14 대표팀에 발탁된 이후로 국가대표로 활약하고 있으며, 올 시즌은 프리미어리그 진출 이후 최다골인 13골 3도움을 기록해 현지 언론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오뚜기 CGV용산아이파크몰서 ‘해피남남라면가게’운영

오뚜기가 국내 최대 규모 영화관 ‘CGV용산아이파크몰’과 협업해 진라면 등 라면 대표제품은 물론 공식 캐릭터를 활용한 옐로우즈 포토존 등 색다른 경험이 가능한 브랜드 공간을 운영한다.

이번 협업은 MZ세대 등 젊은층은 물론, 다양한 연령대의 소비자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영화관에 방문한 관람객이 현장에서 조리된 오뚜기 라면을 직접 맛보고 공식 캐릭터 옐로우즈로 귀엽게 꾸며진 브랜드 공간에서 차별화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

우선, 음식을 즐기는 공간인 씨네팝(CINEPUB)에서 ‘해피남남 라면 가게’를 운영하여 오뚜기 대표 라면 제품을 선보인다. 진라면 순한맛, 마라진라면, 마라 짜슐랭, 마술랭 마라탕면 등 총 4종의 라면을 맛볼 수 있다. 특히 마라 진라면과 마라 짜슐랭은 오뚜기의 마라장을 사용한 특별 레시피로 조리하여 이색적인 라면을 즐길 수 있다.

오뚜기 공식 캐릭터 옐로우즈의 세 캐릭터(뚜기, 마요, 차비)와 시그니처 색상인 옐로우(노란색)를 활용해 꾸민 옐로우즈 포토존도 눈길을 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삼성바이오로직스, 1.5조 수주 ‘역대 최대’

전년도 전체 수주 금액의 40% 수준 올해 연 누적 수주 금액 2.5조 돌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소재 제약사와 약 1조4367억원(10억6000만 달러)의 초대형 위탁생산(CMO)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공시했다. 지난 한해 총 수주 금액(3조5009억원)의 40%를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다.

회사측에 따르면 이번 계약은 지난해 6월 체결된 투자의향서(LOI)의 본계약으로, 1년여 만에 LOI 대비 1조3164억원(9억4749만 달러) 증액된 규모로 체결됐다. 고객사 및 제품명은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으며, 계약 기간은 2030년 12월 31일까지이다.

광동제약, 체외진단기기 전문기업 ‘프리스전바이오’ 인수

아이센스 등 보유 주식 30% 인수 “개인맞춤형 헬스케어 사업 확대”

광동제약은 체외진단기기 전문기업 프리스전바이오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계약을 통해 만 6개월 만에 연 누적 수주금액 2조5000억원을 돌파했다. 지난 3월 첫 계약을 시작으로 글로벌 제약사와 총 7건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중 6건은 고객사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기존 계약의 생산 물량 등을 늘린 증액 계약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시가총액 기준 글로벌 상위 제약사 20곳 중 16곳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으며, 압도적 생산능력, 품질 경쟁력, 트랙레코드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제약사와의 파트너십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가하는 바이오의약품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025년 4월 준공을 목표로 18만 1 규모의 5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5공장이 완공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총 78.4만 l의 생산능력을 확보한다.

품질 측면에서는 올해 6월 기준 누적 규제기관 승인 건수 278건을 기록하고, 지난해에는 99%의 배치(Batch) 성공률을 기록하는 등 의약품 제조·관리되는 전 과정에서 뛰어난 품질 경쟁력을 입증하며, 다수의 성공적인 트랙레코드를 확보하고 있다. 또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확장을 위해 ADC(항체 약물 접합체) 전용 생산시설을 건설 중으로 연말까지 가동 준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광동제약은 프리스전바이오의 최대 주주인 아이센스 등이 보유한 주식 29.7%를 인수할 계획이며, 인수금액은 약 170억 원 규모다.

프리스전바이오는 인체·동물용 검사기, 카트리지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체외진단기기 전문기업이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체외진단기기 및 개인맞춤형 헬스케어 등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을 목적으로 인수를 결정했다”며 “이번 지분 인수를 통해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세경 기자

삼성바이오에피스 ‘피즈치바’ 美서 허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유럽과 미국 모두에서 ‘피즈치바’를 출시할 수 있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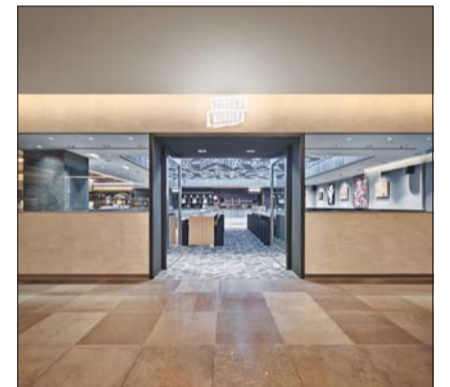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피즈치바(성분명: 우스테키누맵)’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피즈치바는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로, 적응증은 오리지널 의약품인 ‘스텔라라’와 동일하다. 피즈치바는 판상 건선,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 췌장성 대장염 등에 쓰인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피즈치바를 통해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게 됐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엔브렐 바이오시밀러 SB4,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SB2,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SB5 등 중앙괴사인자 알파(TNF- α) 억제제 3종에 이어 ‘인터루킨 억제제’까지 선보이게 됐다고 설명한다.

/이청하 기자 mlee236@



현대그린푸드_고든램지 스트리트 버거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현대백화점

현대그린푸드 식재 유통사업 확대 속도

현대그린푸드가 전문성과 맞춤형 서비스를 앞세워 글로벌 프리미엄 외식 브랜드와 식재 공급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식재 사업 확대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종합식품기업 현대그린푸드는 최근 글로벌 프리미엄 버거 레스토랑 ‘고든램지 버거·고든램지 스트리트 버거’의 국내 매장에 식재 일체를 공급하는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고든램지 버거는 세계적인 스타 셰프 고든 램지가 지난 2012년 론칭한 프리미엄 버거 레스토랑으로, 패티부터 채소·소스 등 모든 재료에 최고 품질만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실제로, 현대그린푸드는 고든램지 버거 대표 메뉴 중 하나인 헬스키친 버거의 주요 재료인 ‘아보카도’를 공급 당일 바로 사용 가능하도록 후숙이 완료된 상태로 공급한다. 일반적으로 2~4일 정도 필요한 후숙 기간을 없애 고객사의 운용 효율성을 높인 것이다.

/최빛나 기자 vitna@